

# 전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력 '국제적 인정'

###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FAPAS)서 2년 연속 국제 수준의 전문성·분석능력 입증

전주시가 2년 연속으로 국제적으로 잔류농약 분석 능력이 매우 탁월한 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시행하는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FAPAS)에 참가해 잔류농약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인정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FAPAS는 분석기관의 다양한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속련도 평가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나라의 정부와 대학, 민간기관 등이 분석 능력을 인정

받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에서 정부기관과 대학연구소, 공인시험기관 등 57개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평가는 참여기관들의 오차범위를 산출해 절대값(Z-score)을 기준으로  $\Delta \pm 2$  이하 '만족'  $\Delta \pm 2 \sim 3$  '의심'  $\Delta \pm 3$  초과 '불만족'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오차범위가 0에 가까울수록 분석 결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 분야 중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능력 부문에 참가해 농산물 오이 시료의 잔류농약을 분석했으며, 제출한 12개 농약 성분 분석값이 모

두  $\pm 0.9$  이하의 표준점수( $\pm 2.0$ ) 범위 내로 분석해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특히 살충제인 엔도살판(0.1)과 아세타미프리드(0.2), 디메토포이트(-0.2), 살균제인 보스칼리드(0.2)와 사이아조파미드(0.2), 플루퀴코나졸(-0.3), 플루톨라닐(0.3)은  $\pm 0.3$ 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와 동일 방법으로 실시되는 농촌진흥청 주관 속련도 평가 프로그램에도 3년 연속 참여해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

면서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농가의 생산단계 및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공공 급식, 전주푸드직매장의 유통단계 농산물 등 연간 1000여 점의 잔류농약 463성분을 분석하는 등 안전한 지역 농산물 생산에 기여해왔다.

시는 이러한 잔류농약 분석 능력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분석업무 담당자들의 분석 장비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제 비교속련도 평가에서 국제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며 "인정받은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15일 송천동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참배행사'를 가졌다.

## 전주시, 광복절 기념 참배행사 거행

### 제79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의 뜻 기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린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가 거행됐다.

전주시는 15일 송천동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원, 기관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참배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화 및 분향, 묵념 등을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인 순국선열

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겼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은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과 유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광복을 되찾은 날인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기림의 날' 맞아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 행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전주시 풍남문광장에 조성된 평화의 소녀상에서 헌화 행사가 진행됐다.

전주시는 지난 14일 풍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에서 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대표 방용승) 위원들과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윤은아) 회원, 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자신



전주시 풍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 헌화 행사.

의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다.

시는 이후 지난 2015년 8월 건립된 전주 평화의 소녀상에서 매년 기림의 날을 기념해 헌화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3·1절과 8·15 광복절, 수요 집회 등 주요 행사 때마다 평화의 소녀상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져왔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림의 날 행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용기와 목소리를 기억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인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하반기 취업 준비 청년에 교통비 10만원 지원

### 시 거주 18~39세 미취업 청년 대상, 총선 교통카드 지원 예정... 19일~ 23일 접수

전주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인당 연간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을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전주시인 18~39세(1984년~2005년생)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1인당 연간 1회에 한정해 지원되는 만큼 지난 상반기 지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지원금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되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비 항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의 통합신청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youth.jon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지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오는 9월 13일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취업준비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걱정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여 취업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최중문 서울청 생활안전차장

제36대 전북경찰청장에 최중문(57·경향대 4기)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감급 경찰청인 전북경찰청에는 최중문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임명됐다.

정읍 출신인 최 신임 전북청장은 서울 남강고등학교와 경찰대를 졸업했다. 이후 전북청 고경정찰서장, 전북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뉴시스



# '엘더 시스템'으로 새내기 업무 역량 강화

### 전주시설공단, 중간 관리자급 직원이 일대일로 조력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새내기 직원들이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며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엘더(Elder)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엘더 시스템은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중간 관리자급 직원이 새내기 직원을 일대일로 돕는 것으로, '엘더'는 연장자를 의미한다.

공단은 특히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이 탁월한 직원을 엄선해 엘더로 지정했다.

엘더들은 새내기들에게 단순한 업무적인 조언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민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반적인 조력에 나설 예정이다.

공단은 또 연령대가 비슷한 선배 직원을 '멘토(mentor)'로 붙여 새내기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다.

지난 7월 입사한 총 37명 새내기 직



원들이 선배들의 조력을 받게 된다.

구대식 이사장은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 없이 전수해 새내기 직원들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를 익혀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엘더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유익하고 소통이 활발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